

KOSBI 중소기업 포커스

중소수출기업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지원 방안

책임작성 | 송영철 연구위원(ycsong@kosbi.re.kr)

※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(www.kosb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| 목 차

1. 서론
2. 코로나19의 '20년 중소기업 영향과 원인
3.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과 정부 지원 수요
4. 결론 및 시사점

| 요약

- '20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'20년 전체 수출금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(약 1,008억 달러)
 - '20년 중소기업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.3% 감소했으나, 이후 하반기에 5.8% 증가하며 반등
 - 다만,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 감소/정체 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코로나 여파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
-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'기존 거래기업과의 거래 감소 및 계약 취소'와 '오프라인 해외마케팅지원 취소'가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적
 - 직접적으로는 현지 통관 및 국내외 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 수출 절차 및 과정상의 문제보다는 현지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
 - 이외 간접적으로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확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(33.4%)과 수출시장/품목을 다변화시키지 못한 구조적 문제점(14.7%)이 주요 원인

- 이에 기업들은 신규수출시장 개척과 유망/신규 품목 개발 및 확대, 온라인수출 확대 등 수출회복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
 - 신규수출시장으로 베트남, 기타 동남아국가 응답률이 높고, 특히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기업의 해당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
 - 한편 온라인수출의 경우 식품, 의류, 화장품 등 한류 영향과 최종소비재 성격이 짙은 수출기업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
- 수출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제 및 금융지원,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및 품목, 판로채널 다변화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
 - 수출실적 악화로 세금 감면, 융자 및 보증보험 확대, 기타 비용지원 등 단기적으로 기업재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
 -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중소기업 수출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
-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업들이 체감하는 코로나19의 특성별 영향과 전망, 지원수요 분야를 고려해 완전한 수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
 -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영향에 취약하고 대응 역량이 낮은 소규모 영세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 퇴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, 이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지원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수출 생존율을 제고시킬 필요
 -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교역구조혁신, 기업특성별 지원 대상의 다원화, 기업별 대응전략수립,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와 교역시장 생태계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지원 로드맵을 구상하고 관련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

1. 서론

■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은 '20년 상반기 급격하게 위축되었으나, 하반기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수준을 유지

- '20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.3% 감소한 이후, 하반기 5.8% 증가하며 반등
 - '20년 전체 중소기업 수출(1,008억 달러)은 전년 대비 0.2% 감소하며 전년 수준을 회복, 중견(△4.1%) 및 대기업(△5.4%) 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

〈표1-1. '20년 기업규모별 코로나19 수출 영향 비교〉

| 구분 | 수출액 (단위: 억 달러, %)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2019년 | | | 2020년 | | |
|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
| 중소기업 | 497 (△5.3) | 513 (△2.8) | 1,009 (△4.1) | 465 (△6.3) | 542 (5.8) | 1,008 (△0.2) |
| 중견기업 | 466 (△6.3) | 466 (△9.1) | 932 (△7.7) | 415 (△11.0) | 479 (2.7) | 894 (△4.1) |
| 대기업 | 1,744 (△10.1) | 1,727 (△15.1) | 3,471 (△12.7) | 1,518 (△12.9) | 1,696 (△1.8) | 3,214 (△7.4) |
| 전체 | 2,711 (△8.6) | 2,711 (△12.0) | 5,422 (△10.4) | 2,405 (△11.3) | 2,723 (0.4) | 5,128 (△5.4) |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 DB;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동향 발표자료

■ 그럼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마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, 원/달러 환율 하락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완전한 수출회복세를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

-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(2020)의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약 70%가 2021년 경영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¹⁾
 - 그 요인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(42.9%)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, 이외 환율 등 금융리스크(19.3%), 무역환경의 불확실성(9.8%) 등이 지적

■ 본고는 최근 수출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실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코로나19 영향과 '21년 전망, 이에 따른 기업대응전략과 정책수요를 살펴보고, 완전한 수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지원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

1) 연합뉴스(2020.12.6.) '기업 10곳 중 7곳 "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영계획 확정 못해".'

- 실태조사는 '20년 9월 20일~11월 15일(약 2개월) 기간 전체 중소수출기업으로 분류된 집단에서 추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메일,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수행
 - 조사 기간과 실제 수출 통계 발표 기간 간 다소 차이가 존재, 다만 실제 '20년 수출 감소가 1~2분기, 회복은 3~4분기로 구분되어 있어 설문응답이 대체로 '20년 전체 수출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분석
- 기업 업력, 규모(매출, 수출), 업종, 수출유형 및 판로채널 등 주요 기업 특성을 고려해 전체 대상 중소기업 중 총 808개 수출 중소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2)
 - 다만, 분량을 고려해 세부 기업 특성별 분석은 조사 항목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시에만 별도로 제시

〈표1-2 설문조사대상 추출 고려 기준〉

| 항목 | 내용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수출규모 | 10만 미만(초보기업) 10만~100만 미만(유망~성장기업) 100만 이상(강소기업 이상) | | |
| 매출규모 | 5억 미만 5억~20억 미만 20억 이상 | | |
| 업력 | 7년 미만 7년~10년 미만 10년 이상 | | |
| 업종/산업 (SIC) | 중·저위기술 이하 산업 | 10-12 | 식음료 |
| | | 13-15 | 섬유, 의복, 가죽류 |
| | | 16-18 | 목재, 펄프, 종이류 |
| | | 32-34 | 기타제조 |
| | | 19 | 석유정제 |
| | 중·저고기술 이상 산업 | 22 | 고무 및 플라스틱류 |
| | | 23-25 | 금속 및 비금속류 |
| | | 21 | 의약 |
| | | 26-28 | 전기전자, 의료기기류 |
| | | 29 | 기계 및 장비류 |
| | 30-31 | 자동차 등 운송기기 | |
| | 20 | 화학 | |
| 온라인수출여부 | 온라인 온프라인 온오프라인 병행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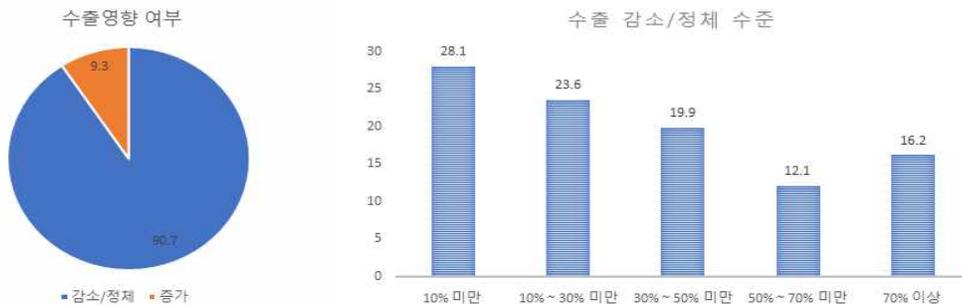
2) 정부지원 수혜여부는 중소기업통합시스템(SIMS) 자료를 참고.

2. 코로나19의 중소기업 영향과 원인

1) 코로나19의 중소기업 영향

- **(수출)** 전체 응답기업의 90.7%가 2020년(1~11월)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/정체한 것으로 응답, 다만 최근 하반기 수출회복으로 감소/정체 수준은 주로 10%미만 구간에 집중
 - 최근 수출회복세에도 불구하고, 지난 1년 간 실제 중소기업들이 체감한 수출 감소/정체의 여파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본 실태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
 - 또한 실제 하반기 수출실적 개선이 K방역 및 뷰티, ICT 및 반도체 관련 업종 등에 집중되었거나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수준의 차이로 품목 및 국가 간 실제 수출실적 체감의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

그림2-1. 코로나19의 수출영향 및 감소/정체 정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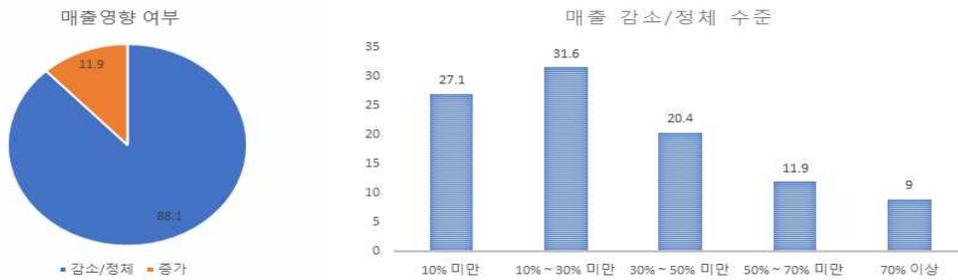


주: 응답 수 (각각 808개, 733개)

- 한편 기업 업력이 짧고, 수출규모가 작은 소규모 수출창업 기업들의 수출 감소/정체 체감 정도가 비교적 큰 반면, 온라인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
 -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가 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수출 채널이 다양한 온·오프라인 병행 수출기업들의 상반기 수출 감소 선방과, 하반기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추정
- **(매출)** 전체 응답기업의 88.1%가 2020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/정체한 것으로 응답, 이는 하반기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부진 지속으로 감소/정체 수준이 수출 보다 높은 30%미만 구간에 집중

-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~25% 정도임을 고려해 볼 때, 하반기 수출회복과 국내 경기부진 간 차이로 기업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/정체 영향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추정³⁾

그림2-2. 코로나19의 매출영향 및 감소/정체 정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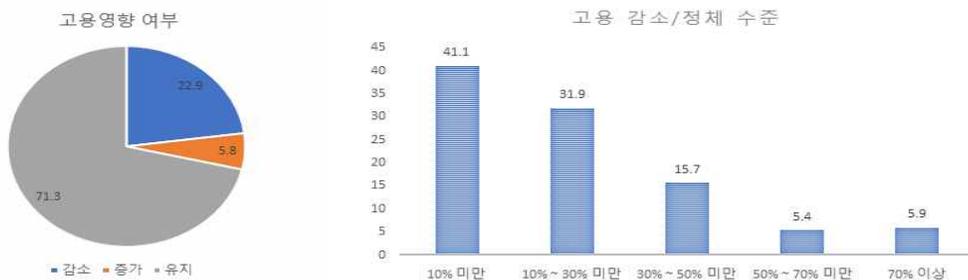


주: 응답 수 (각각 808개, 712개)

- **(고용)** 전체 응답기업의 77.1%가 2020년 근로자 규모를 유지했거나 오히려 확대했다고 응답, 또한 감소 기업 역시 고용 감소/정체 수준이 가장 낮은 10%미만 구간에 집중

-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출 및 매출 감소/정체 수준에 비해 고용 감소/정체 영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
 - 수출 감소/정체 응답 기업의 24%만이 실제 근로자 규모가 감소했다고 응답

그림2-3. 코로나19의 고용영향 및 감소/정체 정도(%)



주: 응답 수 (각각 808개, 185개)

- 다만, 근로자 감소 응답 기업 중 비교적 수출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감소 영향이 대체로 더 큰 것으로 조사
 - 수출규모 10만 달러 미만 소규모 수출기업의 '50%이상 고용감소', '70%이상 감소' 구간 응답 비율이 각각 13.3%, 8%로 가장 높음

3) BizFact(2021.2.7.) 'KDI "수출 늘어 경기 부진 완화"...5개월 만에 긍정신호".'

2) 코로나19의 수출중소기업 영향 요인

- (직접적 원인) 응답기업의 85.3%가 ‘기존 거래 해외기업에 대한 수출 감소 및 계약 취소’를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
 - 현지 통관 및 국내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 수출 절차 및 과정상의 문제보다는 현지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요 감소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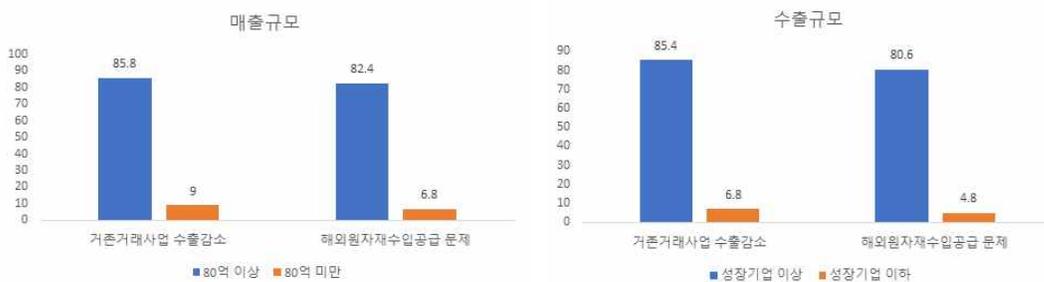
그림 2-4. 수출 감소 및 정체의 직접적 원인(중복응답)(%)



주: 응답 수 (1,025개)

-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‘기존 거래 해외기업에 대한 수출 감소 및 계약 취소’, ‘수출용 해외 원부자재 조달(수입) 어려움’ 응답률이 높음
 - 소규모 수출기업은 비교적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수준이 낮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해외 원부자재·중간재 공급네트워크가 다양하지 못해 대체시장 확보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
- * 위 두 사업에 대한 매출 80억 원 미만 기업의 응답률은 각각 85.8%, 9.0%(평균 이상), 반면 80억 원 이상인 기업은 각각 82.4%, 6.8%(평균, 평균 이하 수준) 임.

그림2-5. 기업 규모에 따른 응답률 비교(중복응답)(%)



주: 응답 수 (각각 625개, 62개)

- 수출 감소·정체 국가로 중국(87.1%)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베트남(79.7%), 일본(79.5%), 미국(77.7%) 등이 뒤를 이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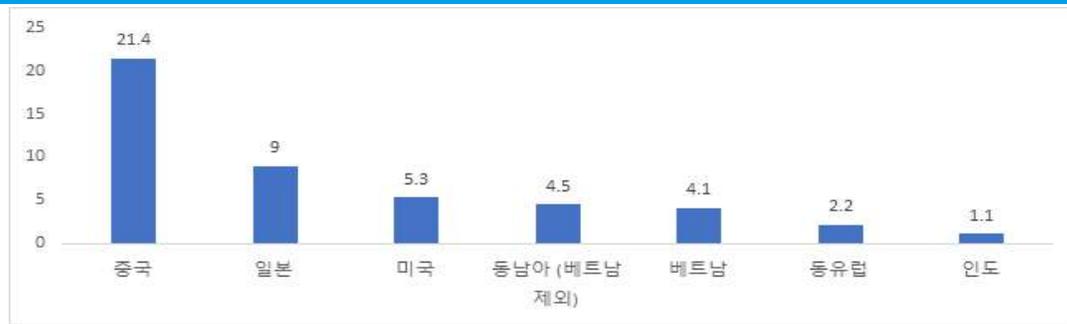
그림 2-6. 주요 국가별 수출 감소·정체 응답률(중복응답)(%)



주: 응답률은 (국가별 수출 감소·정체 응답 수/국가별 수출 응답 수)×100으로 계산; 응답 수 (1,026개)

- 한편 기업의 수출용 국내생산 해외 원부자재조달이 어려운 국가로 중국(21.4%)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, 이후 일본(9%), 미국(5.3%), 동남아(4.5%) 순으로 조사

그림 2-7. 해외 원부자재 수입이 어려운 국가(중복응답)(%)



주: 응답 수 (370개)

- (간접적 원인) 응답기업의 55%가 ‘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취소’로 인한 수출기회 감소를 가장 큰 간접적 원인으로 지적

- 이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(33.4%), 또한 수출시장/품목을 다변화시키지 못한 구조적 문제점(14.7%) 등을 지적

그림 2-8. 수출 감소 및 정체의 간접적 원인(중복응답)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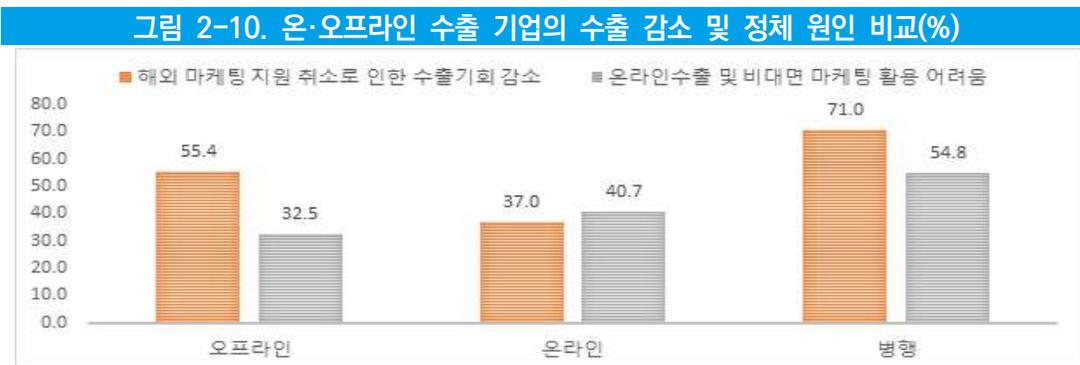
주: 응답 수 (733개)

- 해외 마케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종소비재의 ‘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취소’⁴⁾ 응답률은 60%로 원자재·중간재(48.9%), 자본재(52.1%) 보다 높음
 - 이는 현재 B2C 중심의 온라인수출 플랫폼이 B2B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최종소비재 온라인 수출기업들의 해당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



주: 응답 수 (242개)

- 오프라인 수출기업의 경우 ‘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취소’ 응답률(55.4%)이 높은 반면, 온라인 수출기업(병행 포함)은 ‘온라인 수출 및 비대면 활용 어려움’ 응답률(48.2%)이 가장 높음
 - 해외마케팅 의존도가 높은 오프라인 수출기업들은 신속한 온라인 전환의 한계, 기존 온라인 수출기업들은 최근 급속하게 확대, 고도화되는 비대면 거래 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



주: 응답 수 (242개)

- 한편 오히려 수출규모와 업력 수준이 높고, 온오프라인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들이 수출구조의 한계(시장 및 품목)를 지적한 응답률이 더 높은 경향

4) 코로나19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오프라인 해외마케팅을 온라인,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대체 지원을 지속

- 이는 응답기업의 현재 수출구조 다변화 수준 차이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기 보다는, 해당 특성 기업들이 수출구조혁신의 필요성을 보다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

그림 2-11. 기업 특성별 수출구조한계 응답 비율 비교(중복응답)(%)



주: 응답 수 (108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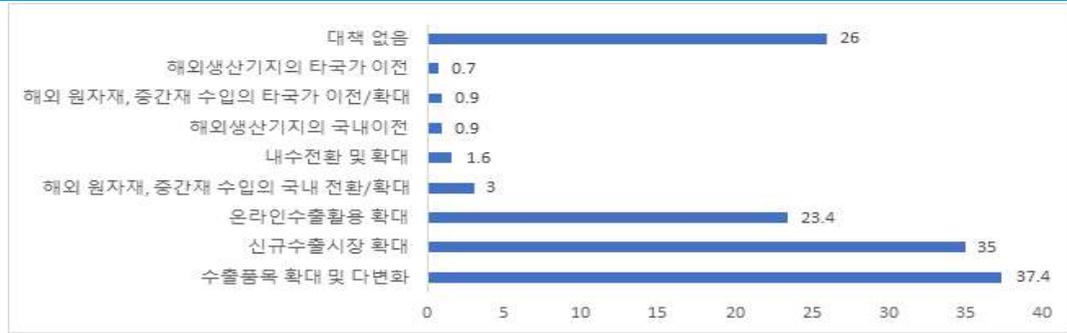
3.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과 지원 수요

1) 중소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전략

■ (전체) 응답기업의 72.4%가 코로나19영향 대응전략으로 신규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다변화 필요성을 지적, 반면 26%는 전략이 부재하다고 응답

- 온라인수출 활용 확대 응답이(23.4%) 뒤를 이었으며, 이외 해외 생산 및 원부자재 수입의 국내 전환, 또는 타 지역으로의 전환 등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

그림 3-1. 중소기업의 코로나19 대응전략(중복응답)(%)



주: 응답 수 (808개)

- (수출규모) 수출규모가 클수록 ‘신규수출시장 개척 및 품목다변화’, ‘온라인수출활용 확대’ 응답률이 높은 반면,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전략이 부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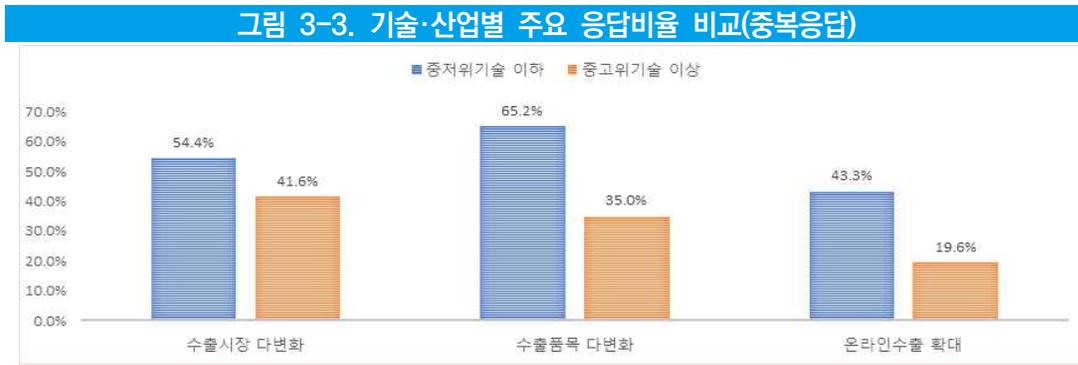
그림 3-2. 기업규모별 주요 대응전략 응답비율 비교(%)



주: 응답 수 (각각 774개, 210개)

- (기술·산업) 중·저위 기술 이하 산업의 ‘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’, ‘온라인수출 확대’ 응답률이 대체로 중·고위 기술 이상 산업 보다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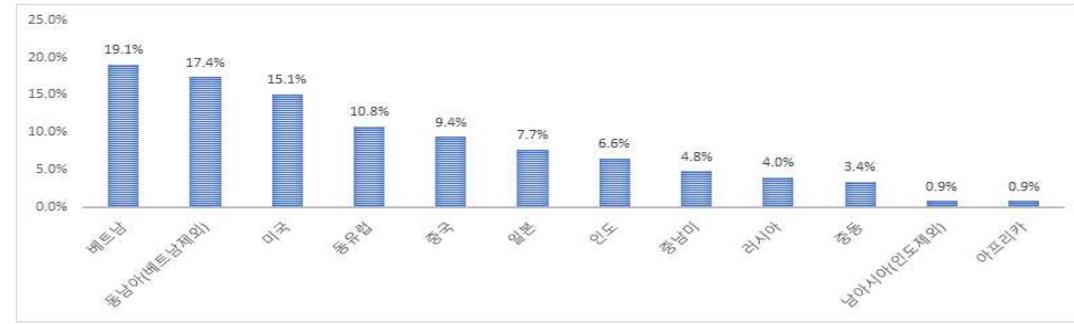
- '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'의 경우 중·저위 기술 이하에서는 식·음료, 섬유·의류, 금속·비금속 분야, 중·고위 기술 이상에서는 의약, 화학 분야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음
- '온라인수출 확대'의 경우 중·저위 기술 이하에서는 식·음료, 섬유·의류, 중·고위 기술 이상에서는 화학 분야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음
- * 식·음료, 섬유·의류, 화학 분야의 경우 가공식품, 신발 및 가방, 의류, 화장품 등 최종소비재 형태의 수출 비중이 높아 온라인수출을 통한 판로채널 다각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추정(화학분야 응답기업의 29%가 화장품류 수출 기업)
- * 품목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최종재의 '수출시장 다변화(40.4%)', '온라인수출확대(31.9%)' 응답률이 중간재, 자본재 보다 더 높음.



주: 응답 수 (774개)

- **(新수출시장 개척)** 수출 신규시장 개척 대상으로 베트남(19.1%) 응답률이 가장 높고, 이후 동남아(17.4%), 미국(15.1%), 동유럽(10.8%) 순임.
- (전체) 주력시장인 미국, 중국을 제외하고 상위 5개가 신흥국가 및 지역, 한편 일본과 중국의 경우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영향, 기 진출 비중이 높은 이유 등으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
 - 다만, 전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(56%)이 신규시장 개척 대상으로 고려하는 국가나 지역이 없다고 응답(436개)
 - 중국, 미국 등 주력시장의 경우 이미 우리기업들이 상당 수 진출해 있어 신규개척 시장으로서의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

그림 3-4. 신규 수출개척 대상 국가 선호도 비교



주: 응답 수 (372개); 응답기업 중 1순위 선호국가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

- (업력) 업력 7년 미만 수출창업기업의 경우 신규 개척 시장으로 신흥시장 보다는 미국, 중국 등 기존 주력시장을 선호, 반면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베트남,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응답률이 높음
 - 7년 미만 기업의 전체 수출에서 對미국, 對중국, 對일본 수출 비중이 7년 이상 기업들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러시아, 인도, 일부 동남아 등 신흥국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조사
- * 이는 대체로 수출창업기업들이 수출 초기 신흥국을 주력 수출시장으로 선점하고, 점차 주력시장인 미국, 중국 등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추정

그림 3-5. 업력별 신규 수출개척 대상 국가 선호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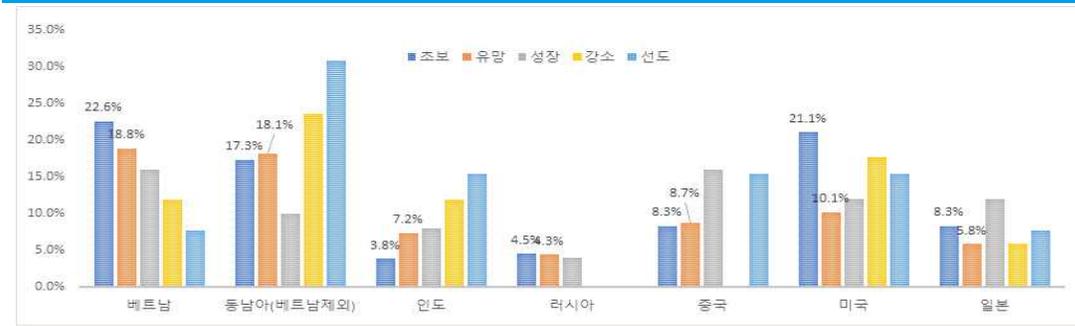


주: 응답 수 (372개); 응답기업 중 1순위 선호국가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

- (수출규모) 수출 초보~유망 구간 기업의 경우 신규개척 시장으로 베트남, 기타 동남아, 미국에 대한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
 - 현재 수출 100만 달러 미만의 초보~유망기업의 수출은 중국(24%)에 집중, 이에 향후 신규수출시장으로 한류 영향이 높고, 지리적으로 인접한 베트남, 기타 동남아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

* 다만, 초보~유망기업의 경우 신규시장 개척 대상으로 고려하는 국가나 지역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(전체 303개중 170개)

그림 3-6. 수출규모별 수출 신시장 개척 대상 국가



주: 응답 수 (372개); 응답기업 중 1순위 선호국가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

- (품목유형) 원자재·중간재, 자본재의 경우 신규수출 시장으로 베트남(22%, 24%), 동남아(17.3%, 20%)의 응답률이 높음
 - 코로나19로 거리적 접근성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해외생산거점으로 부상하면서, 최종소비재 보다 원자재·중간재, 자본재 수출 기업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정

그림 3-7. 품목유형별 수출 신시장 개척 대상 국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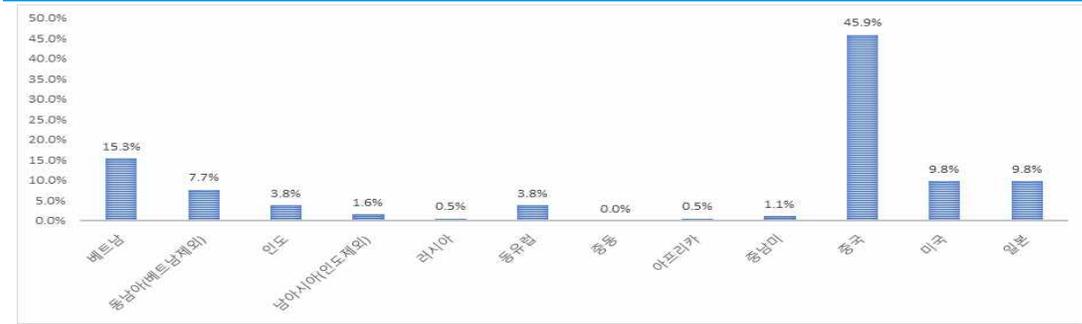
주: 응답 수 (372개); 응답기업 중 1순위 선호국가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

- (수입공급망 개편) 해외 원부자재 수입처 전환 또는 확대 대상 국가로 중국(45.9%)이 가장 높고, 베트남(15.3%), 미국(9.8%) 등이 뒤를 이음, 다만 응답 기업 중 상당 비중이 전환/확대 계획이 없다고 응답
- (전체)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위한 국내생산용 원부자재·중간재 수입처로 여전히 중국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

- 중국의 대안으로 베트남, 동남아 등이 대체지로 고려될 순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입공급망을 단기간에 전환, 확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

* 기존 중국, 미국, 일본으로부터 원부자재·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(216개, 44개, 63개)의 84%, 77%, 65%가 수입처 전환/확대 계획이 없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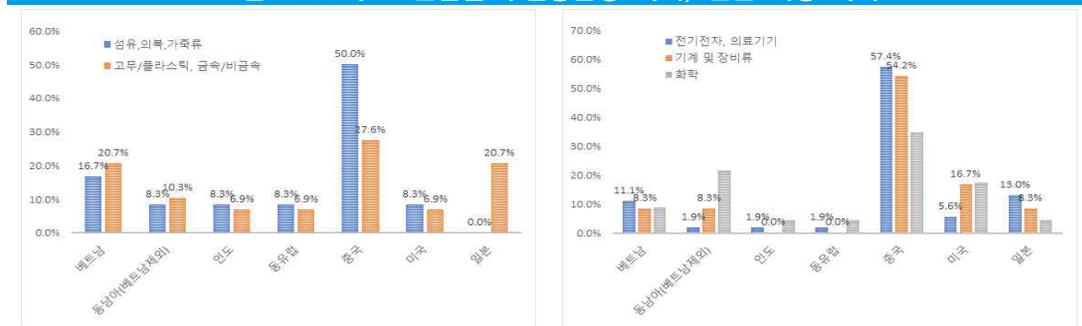
그림 3-8. 수입공급망 확대, 전환 대상 국가



주: 응답 수 (365개); 응답기업 중 1순위 선호국가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

- (기술·산업) 특히 전기전자(57.4%), 기계류(54.2%)의 경우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중국을 주요 수입처로 고려
 - 섬유/의복, 금속/비금속 역시 중국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차 순위로 베트남, 동남아, 인도 등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그림 3-9. 주요 산업별 수입공급망 확대, 전환 대상 국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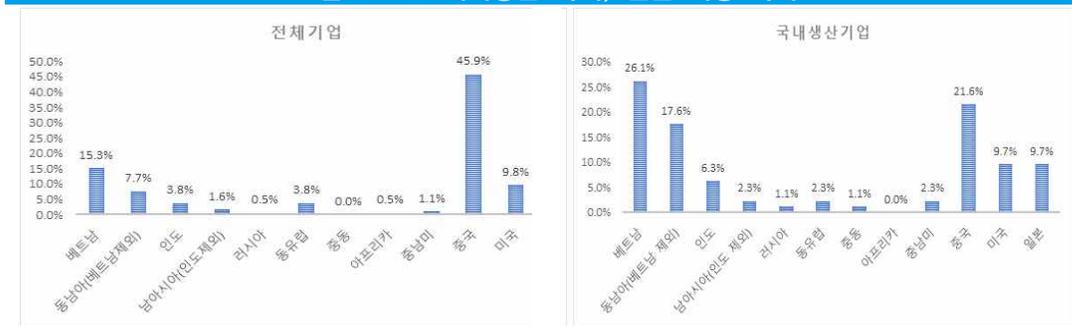


주: 응답 수 (365개); 응답기업 중 1순위 선호국가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

- (생산기지 전환/확대) 해외생산 이전, 확대 대상 국가로 중국(45.9%)이 가장 높고, 베트남(15.3%)이 뒤를 이음, 다만 응답 기업 중 상당 비중이 전환/확대 계획이 없다고 응답

-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유지하거나 타 국가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분석
 - 기존 중국,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 기업(68개, 41개)의 79%, 78%는 이전/ 확대 계획이 없다고 응답
- 다만, 기존 해외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는 해외 진출 시 베트남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이 26.1%로 가장 높고, 중국(21.6%)이 뒤를 이음

그림 3-10. 해외생산 확대, 전환 대상 국가



주: 응답 수 (331개); 응답기업 중 1순위 선호국가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

2) 對중소수출기업 정부지원 수요 분야

- (단기지원) 단기지원 수요분야로 수출세제 혜택 지원(54.2%) 응답률이 가장 높고, 이외 물류비용/신속통관 지원(47.4%), 긴급유동성지원(41.2%)이 뒤를 이음⁵⁾
- (전체) 수출 감소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로 세금 감면, 용자 확대, 비용 지원 등 단기적으로 기업재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

5) 단기지원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발현 이후 정부가 수출회복을 위해 지원한 사업들을 '단기지원'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속 지원 필요 여부와 수혜여부, 그리고 지원 만족도를 조사함.

그림 3-11. 단기지원 수요분야(중복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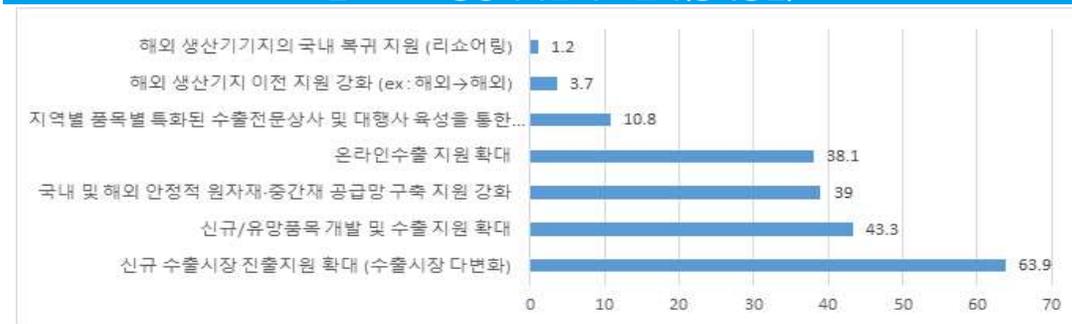
주: 응답 수 (808개)

- (업력/수출규모) 특히 업력이 짧고 수출규모가 작을수록 긴급유동성지원, 응답비율이 높음
 - 지원수요분야 중 업력 10년 미만의 수출창업기업과 수출규모가 초보~유망 구간인 기업의 '긴급유동성지원' 수요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
 - * 수출경험이 부족하고, 수출 규모가 작을수록 코로나의 장기적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해 유동성 확대 수요가 더 큰 것으로 추정

■ (중장기지원) 중장기지원 수요 분야로 신규수출시장 개척(63.9%) 및 유망품목 개발(43.3%) 응답률이 높고 국내외 공급망 안정화 지원(39.5%) 비율이 뒤를 이음

- (전체)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신규수출시장 개척, 신규/유망 품목개발 및 확대, 판로(온·오프라인) 다변화 등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

그림 3-12. 중장기지원 수요분야(중복응답)



주: 응답 수 (808개)

- (업력/수출규모) 업력이 짧고 수출규모가 작을수록 신규수출시장 개척 및 신규/유망품목 개발 및 확대, 전문무역상사 육성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
 - 2019년 기준 수출 100만 달러 미만, 업력 7년 미만 기업의 평균 수출 국가 수는 각각 약 3.5개, 11개, 수출 품목 수는 각각 약 5개, 25개로 격차 존재)
 - 한편 온라인수출 지원의 경우 업력이 길고, 수출규모가 큰 기업의 수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
- * 수출창업 기업일수록 이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소규모 수출이 비교적 활발하고,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것으로 추정

그림 3-13. 업력별, 수출규모별 주요 중장기지원 수요 비교(중복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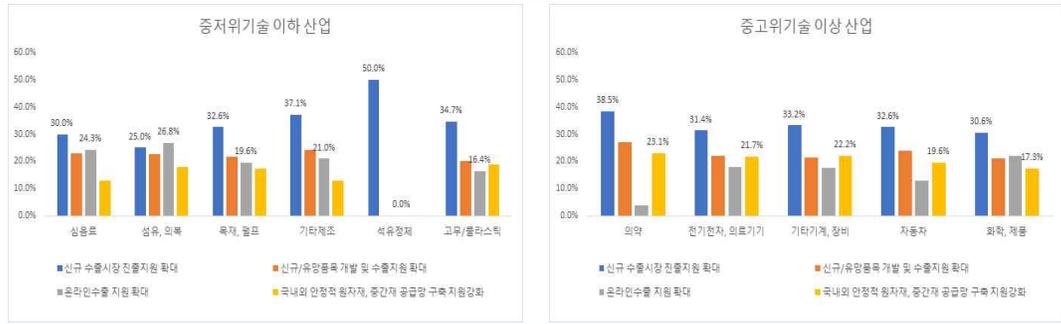


주: 응답 수 (808개)

- (기술·산업) 전체적으로 신규수출시장 개척, 신규/유망품목개발 지원 응답률이 가장 높고, 일부 산업 특성에 따라 온라인 수출, 또는 국내외 공급망 안정화 비중이 높게 나타남
 - 최종소비재 성격이 짙은 식료품, 섬유/의류 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
 - 반면 글로벌 분업구조가 비교적 고도화되고 중간재, 자본재 교역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, 기계, 자동차 분야의 경우 공급망 안정화 수요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

6) '20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분석 참고

그림 3-14. 기술·산업별 정부지원 수요 분야(중복응답)



주: 응답 수 (808개)

4. 결론 및 시사점

1) 중소수출기업의 '21년 코로나19 영향 전망

- (장기화 전망) 코로나 영향 장기화(1년 이상)로 수출 및 매출의 감소/정체 지속은 물론 고용 감축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
 - 코로나 영향에 취약하고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영세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 퇴출이 현실화될 가능성
 - 수출 규모가 작고, 수출 경험이 적을수록 수출 생존율 낮아, 코로나 영향이 장기화 될 경우 수출체력이 약한 기업부터 퇴출될 것으로 예상
 - * 최근 10년 전체 수출중소기업 평균 생존율 36.9%, 수출 10만 달러 미만(초보) 기업 생존율 25.1%(업력 10년 미만 기업 18.4%)
 - 수출시장 퇴출과 경영악화가 지속될 경우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은 물론, 신규 고용 역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
 - * 응답기업의 약 50%가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이중 30~50% 감축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음

2) 정부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 및 과제

- (교역구조혁신 지원)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교역구조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
 - (시장 다변화) 코로나19, 보호무역주의 등 최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구조 안정화를 위해 수출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
 - 미국, 중국 등 기존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은 아세안, 인도, 러시아, 동유럽 등 신흥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확대할 필요
 - * 중소기업 진출 기회가 높은 국가 및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특화된 지원에 재원을

보다 집중할 필요, 특히 신규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지원 우선순위 부여

*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, 중국, 일본, 베트남에 수출하는 기업의 27%~37.3%가 '수출시장 다변화'를 대응 방안으로 응답

- (품목 다변화) 시장 다변화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
 - 기존 품목의 고부가가치화, 소재·부품·장비 등 전략 품목, 기술 및 서비스 수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수출 R&D 지원 확대 필요
 - * 품목 다변화는 시장 다변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, 이에 다변화 수요와 잠재력이 높은 유망-성장-강소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필요
 - * 품목 다변화를 위한 방법을 유형별로 분류해 이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개발하고, 보다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 예산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
- (온라인 수출지원 강화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경 간 비대면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
 - 활용 및 만족도가 기대보다 낮은 B2B 공공플랫폼 고도화,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내외 B2C 플랫폼 활용 지원 예산 확충, 플랫폼 간 연계성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필요
 - *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오프라인 수출기업들의 온라인 수출 및 마케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, 기존 온라인수출 기업들 역시 활용 측면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
 - * 산업 및 업종별, 품목 유형별 온라인 수출 수요, 활용 방법의 차이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플랫폼 구축 및 활용,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필요
- (공급망 안정화) 특정 국가, 거래처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
 - 업종 및 품목 특성별로 국내외 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네트워크 참여 가능 기업의 DB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매칭 지원을 강화할 필요
 - 신규 공급망 발굴 및 구축을 위한 시장조사 지원을 확대하고, 해외생산 거점의 국내외 이전 등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지원할 필요

-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근 RCEP 체결, CPTTP 가입 논의, 美대선 결과 등 자유무역주의의 회복과 확대 가능성 높아, 중소기업의 역내 GVC 구축과 적극적인 FTA활용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
■ (지원대상 다원화) 수출규모, 업력, 산업, 시장 등 개별 기업의 수출 특성과 코로나 영향 수준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다원화할 필요

- 코로나19의 수출 감소 영향이 크고 장기화 전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수출경험이 적은 기업에 지원을 우선 집중하고, 성장단계별 지원 규모와 내용의 차등화 필요
 - '20년 정부의 코로나 단기대응 지원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업력 10년 미만 기업이 가장 높았으나, 이 중 실제 수혜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0년 미만 구간이 가장 높음
 - 한편 소규모 수출기업일수록 정부지원 미신청 비율이 타 구간 대비 높은 편, 이들 기업이 정부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필요
- 산업 및 업종별 코로나 영향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내용 및 예산을 수립하고, 이를 고려한 지원 대상을 특화해 지원할 필요
 - 분업구조가 복잡한 산업(전기전자, 자동차 등)의 경우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고 화장품, 의류, 식료품 등 유망 소비재 등은 온라인수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
-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수준, 그리고 진출 수요가 높은 수출시장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원 규모와 내용을 특화해 지원할 필요
 -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 및 물류, 공급, 생산 여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유연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
 - 특히 신남방, 신북방 등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 관심도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와 특화 서비스를 내실화할 필요

■ (기업대응전략 수립 지원) 코로나19 장기화에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할 필요

-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, 조사 대상기업의 25%가 대응전략이 없다고 응답
- 대응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출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코로나19 영향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자구적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, 수출 생존율을 제고시킬 필요⁷⁾
 - 유망시장/품목 발굴, 품목 고부가가치화, 상품의 서비스화, 온라인수출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다각화를 위한 밀착 지원 필요

■ (장·단기 지원계획 수립 지원)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확충 및 단기 및 중장기지원 로드맵을 구상하고, 기업들의 정부지원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

- 현재 단기적 지원을 지속 유지하되, 예산 확충을 통해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, 지원내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
 -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약 90%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지원했으나 수혜 받지 못한 기업이 6.8%인 반면, 수혜 받은 기업은 2.9%에 불과
 - 전반적으로 업력이 짧은 수출 초기 기업들의 단기지원 신청 비율이 높은 편, 신규 수출기업들의 수출생존율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단기지원을 보다 집중할 필요
- 비대면 마케팅, 용자, 세제 등 단기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생존율을 제고시키는 한편,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역구조 혁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필요
 -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, 국내외 중간재 공급망 확대 및 유연성 확보, 해외거점 다변화, M&A 등을 통한 해외투자 확대, 디지털교역 인프라 및 제도 완비 등을 통해 교역구조 혁신을 도모할 필요
 - 특히 글로벌 디지털경제화의 진전과, 코로나19영향을 기점으로 기존 오프라인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 병행 및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수출 플랫폼 고도화와 관련 교육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

7) 최근 약 10년 간 수출창업기업(스타트업)의 수출생존율은 21.6%(기존 수출기업 47%),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은 약 30%(100만 달러 이상 기업 61%)에 불과('20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분석 참고)

참고자료

전국경제인연합회. 2020. '2021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'

'20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 분석'. 중소벤처기업부. 2020.

연합뉴스(2020.12.6.) '기업 10곳 중 7곳 "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영계획 확정 못해".

BizFact(2021.2.7.) 'KDI "수출 늘어 경기 부진 완화"...5개월 만에 긍정신호".

중소기업통합시스템(SIMS) DB

KOSBI 중소기업 포커스

발행인 : 이동주

편집인 : 이동주

발행처 : 중소기업연구원

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(신대방동 686-70) (07074)

전화: 02-707-9800, 팩스: 02-707-9894

홈페이지: <http://www.kosbi.re.kr>

인쇄처 :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

-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